

● 문화재청 공고 제2022-3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와대 노거수 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청와대 노거수 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2) 지정명칭 : 청와대 노거수 군(靑瓦臺 老巨樹 群)
Old Big Trees of Cheongwadae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 4) 주요현황
 - 가) 수 종 : 반송, 회화나무, 용버들, 말채나무
 - 나) 수 령 : 100년 ~ 230년(추정)
 - 다) 규 모 : 6주

연번	수종	수령 (추정)	규모(m)			
			수고	근원둘레	수관폭	
					동서	남북
1	반 송(1주)	170년	7.4	4.35	21	17.2
2	회화나무(3주)	230년	14 / 13.2 / 15	2.9 / 2.8 / 2.9	19.8 / 20.3 / 21	
3	용 버 들(1주)	100년	15	3.8	18.1	
4	말채나무(1주)	150년	15	2.35	13	

5) 문화재구역: 1필지 240,926㎡(지정구역 6,98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종로구 세종로	1	대	240,926	6,984	국(대통령비서실)	

나. 지정사유

- 1) 청와대 노거수 군은 경국대전(권6 공전, 재식편), 도성내외송목금별사목(1469)과 도성지도(18세기 말), 경성시가도(1933년) 등 역사적 문헌기록을 통해 약 300년 동안 보호되어온 수림지에서 자란 수목으로 경복궁 후원에서 청와대로 이어져온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2) 1938년 경무대관저경내부지배치도(축척1/1,200)를 통해 북악산에서 시작해 청와대를 지나 향원정까지 이어지는 물길 인근에서 자리잡고 커왔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1910년과 1928년에 촬영된 유리원판사진에는 용문당·용무당과 함께 서있는 반송과 주변 수림지를 볼수 있음.
- 3) 수목별 가치를 보면 반송은 수관폭이 크고 수형이 아름다워 청와대를 대표하는 노거수로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현장을 지켜온 대표적인 수목이며, 회화나무 세 그루는 녹지원 인근 수림지에 있는 나무들 중 가장 키가 크고, 경복궁 후원의 본래 식생을 추정할 수 있는 수종이며, 창덕궁에 있는 회화나무 군과 비교해도 규모면에서 손색 없고 생육상태도 양호함. 또한, 말채나무는 자생수종으로 말의 채찍으로 사용되어 우리민족의 생활사와 관련이 있고 오늘날 도심에서 쉽게 볼수 없는 수종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용버들은 고대부터 승천하는 용을 상징하여 황실에서 애호하던 수종으로, 북악산에서 시작한 물길인근에 사는 생물학적 희소성을 지닌 지표수종임.

다. 문화재 관리단체 : 문화재청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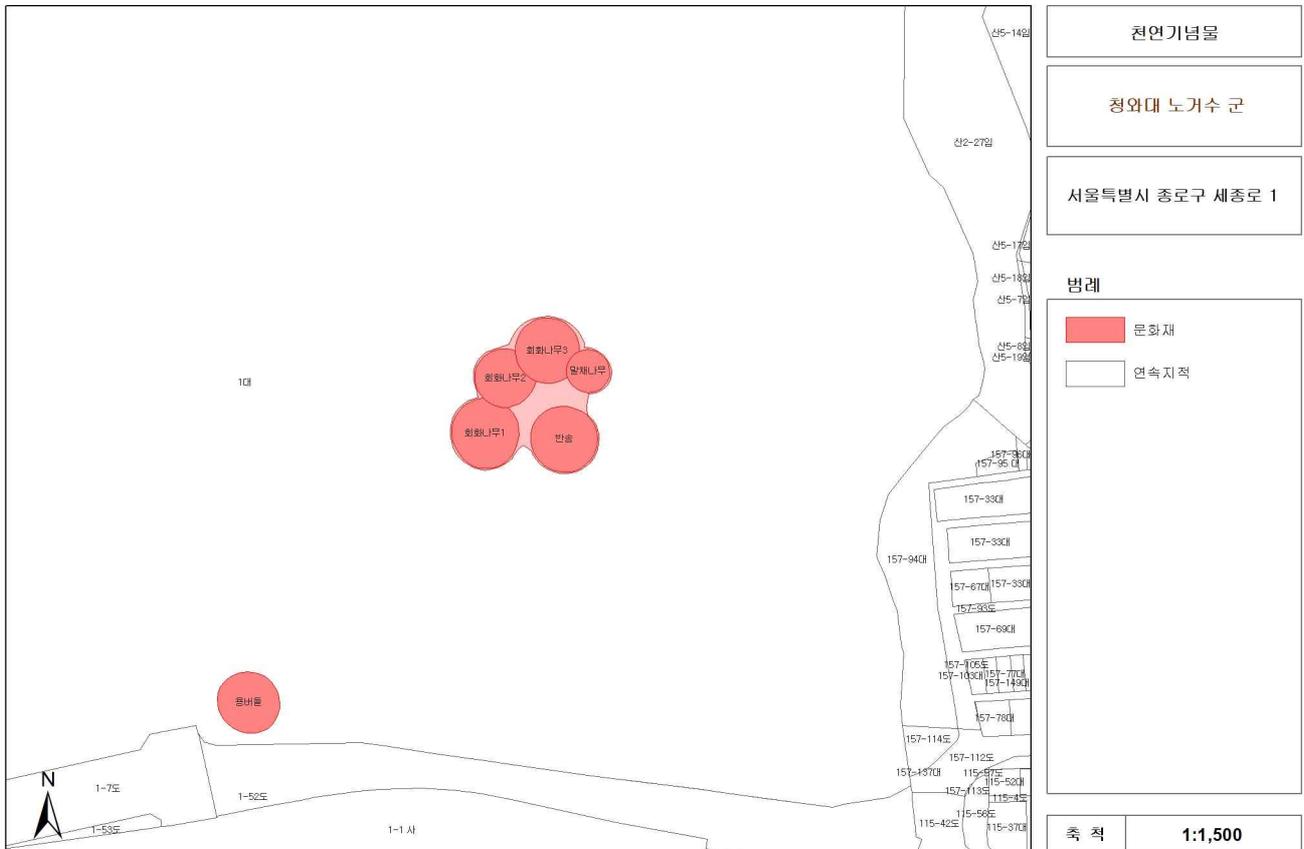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orest98@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